



보도 일시	(지 면) 2.17.(금) 조간 (인터넷) 2.16.(목) 12:00	-
-------	---	---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용 (044-204-7620)
	창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강주실 (044-204-7624) 김동일 (044-204-7632)

##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2년 조사) 결과 발표

□ 2020년말 기준, 창업기업 수는 307만 1,694개

- 기술기반창업기업 67.6만개(22.0%), 청년창업기업 67.5만개(22.0%)
- 전체 고용인원은 361.2만명(평균 1.2명), 매출액은 988.5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 '22.4월 공개)를 전수 분석하여 창업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창업기업 중 표본을 추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 창업기업실태조사 개요 >

■ 조사 개요 :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 '13.11.27), 조사주기 1년

■ '22년 창업기업실태조사 개요

- |                                      |   |  |
|--------------------------------------|---|--|
| ① '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 ('22.4월 통계청) 전수 분석 | → | • 전체 창업기업 수, 매출액, 고용인원 확인<br>* '14.1.1~'20.12.31에 창업한 기업                             |
| ② 확인된 전체 창업기업 중 표본추출 (전국, 전 산업 대상)   | → | • 응답기업 8,000개<br>• 준비단계(창업경험, 준비활동 등), 실행단계(자금조달, 창업형태 등), 성장단계(재무, 자금, 인력 등)별 특성 조사 |

## 창업기업 일반 현황

'20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2만개로 나타났다.

이중, 기술기반창업\*은 67.6만개(22.0%), 비기술기반업종은 239.6만개(78.0%)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이 67.5만개(22.0%), 중장년층 창업기업이 239.3만개(77.9%)로 나타났다.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기준 적용)

전수조사 결과 307.2만개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361.2만명(기업당 평균 1.2명)이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167.5만명(46.4%, 기업당 평균 2.5명)을 고용하여 기업 수 비중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력을 나타냈다.

전체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88.5조원으로 나타났다.

<'20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 고용인원, 매출액>

구분		창업기업 수(개)	고용인원(명)	매출액(조원)
전체		3,071,694	3,611,672	988.5
업종	기술기반	675,923 (22.0%)	1,675,172 (46.4%)	278.5 (28.2%)
	비(非)기술기반	2,395,771 (78.0%)	1,936,500 (53.6%)	710.0 (71.8%)
연령	청년	675,140 (22.0%)	557,091 (15.4%)	157.0 (15.9%)
	중장년	2,393,319 (77.9%)	3,054,581 (84.6%)	823.3 (83.3%)

한편, 이번 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는 예년과 달리 자유 활동가(프리랜서), 1인 매체(미디어), 전자상거래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만, 창업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변경 이전 기준의 '20년 모집단 자료를 통계청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아 '19년과 비교한 결과는 창업기업수는 2.4% 늘었지만, 매출(△0.7%)과 고용(△1.2%)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20년 코로나 확산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구분	'19년	'20년	증감률
창업기업 수(개)	1,962,665	2,009,359	2.4
고용인원(명)	2,983,995	2,948,535	△1.2
매출액(조원)	741.2	736.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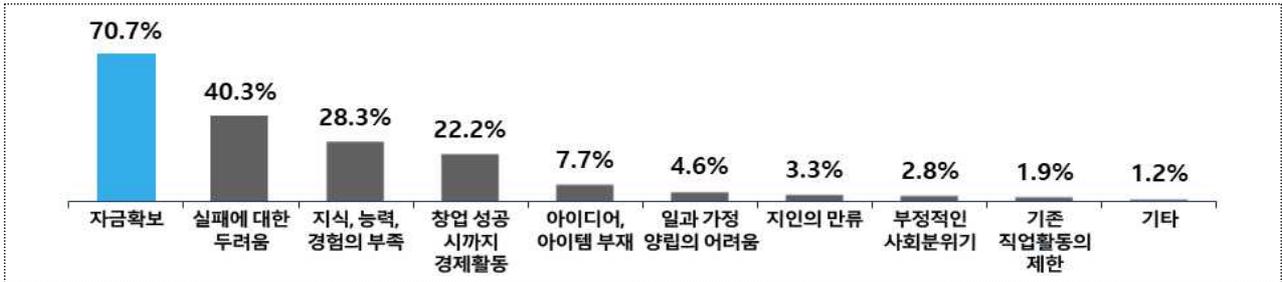
## 창업기업 단계별 특성

### <창업 준비단계>

창업 직전 직장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63.8%로 절반 이상이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 경험(재창업)이 있는 기업은 36.2%였으며, 평균 창업 횟수는 1.4회이었다.

창업 장애요인은 '자금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40.3%),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28.3%) 순으로 응답한 반면, '지인 만류'(3.3%), '부정적인 사회분위기'(2.8%)라고 응답한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 장애요인(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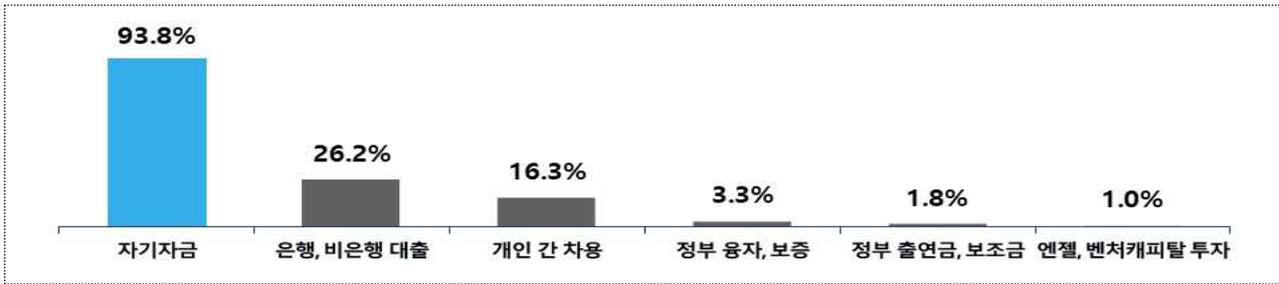


### <창업 실행단계>

창업기업들의 주요 창업동기는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하여' 52.7%,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38.0%,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28.6% 순이었다.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은 평균 3.18억원 수준이며, 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자기자금'이 9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지원이나 투자를 받은 경우는 6% 수준이었다.

< 자금 조달방법(복수응답) >



<창업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정규직 고용비율은 전체 인력의 83.7% 수준이었으며, 평균 자산은 5억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9%로 나타났다.

평균 3.15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장관은 “조사 특성상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창업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매출 등의 비중을 참고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기술기반 창업을 더욱 촉진하고, 세계적(글로벌) 창업대국을 이룩하여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보고서는 창업진흥원 누리집(<http://www.kised.or.kr>)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